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 살아지다2 ‘승기천을 기억하다’				
구술자명	김원균	면담자	남희현		
면담장소	엄지식당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19년 10월 29일(화) 오후3시	회차	1	시간	40분 50초
자료번호	Mi chuholCA-07-00000737				
구술 개요	대청도에서 태어나 72년도에 인천으로 이사옴, 까치사거리에 개천이 있었던 기억, 인천에 와서 밤에 전기불이 들어와 놀란 기억, 시골보다도 고향 같은 인천				
주요 색인어	대청도, 미추홀구, 물길, 개천, 마굿간, 수도, 전기불, 까치사거리, 인천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72년 무렵의 미추홀구			00:00:00~ 00:09:27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원고 원본	
- 대청도에서 태어나 72년에 인천으로 옴. - 남구청(미추홀구청)은 지금의 보건소 자리에 있었음. - 승의초, 인천남중이 있는 조용한 동네로, 근처에 2층집이 줄지어 있었음. - 미추홀구청은 당시 인천교육대학 자리였고 옆에 부속 초등학교가 있었음. - 제물포역은 옛날 시골길의 역처럼 기와를 인 것이었음.					
2. 까치사거리의 개천			00:09:28~ 00:14:08		
- 까치사거리(장천사거리)에 있던 개천에 신발을 빠뜨렸던 적이 있음. - 물길이 까치사거리에서 전화국 쪽으로 있었음. - 평소에는 바닥이 보이고 지저분했으며 양옆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집들이 있었음. - 76년 고2 무렵에는 형제들과 사촌들도 미추홀구로 와서 살았음.					
3. 마굿간이었던 집			00:14:09~ 00:19:47		
- 주차장은 마굿간이었고, 집은 말줄 쏘는 집을 개조한 것임. - 마굿간을 막아 방으로 꾸며 세를 주고 사람을 들임. - 주차장 벽으로 보이는 곳은 일제 강점기 사택이었음. - 화장실은 차고에 있었는데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음. - 70년대에 집에 수도가 있었음.					
4. 미추홀구에 대한 회상			00:19:48~ 00:29:34		
- 인천에 와서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인천 중심가는 동인천으로 주안역 일대는 염전, 시청 일대는 밭이었음. - (송의동은) 학군이 좋고 발전한 곳이었음. 과거에는 미나리밭이 있었음. -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독정이 고개에서 많이 살았음. 		
<p>5. 도로와 물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의로터리 가는 길만 있다가 까치사거리에서 송의오거리까지 직진해서 가는 길이 생김. - 물길이 남아 있는 모습은 잘 상상이 안 됨. 	<p>00:29:35~ 00:30:53</p>	
<p>6. 고향 같은 미추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시절부터 살아 미추홀구가 시골보다 더 고향 같음. - 넓다고 생각했던 도로가 지금 보면 아주 좁아 보임. - 당시는 살기 힘들었지만 인간적이었는데 세상이 전부 변하는 것이 아쉬움. 	<p>00:30:54~ 00:40:50</p>	